



## 수출신용기관

### ◆ 미수는 최근 동향

#### 1. 2005회계연도 업무실적

##### 개요

미수은은 2005회계연도 중 총 3,128건, 139억 달러의 여신을 승인하였으며, 정부 예산지원(program budget) 1달러당 57달러의 신규여신을 창출하고, 총 179억 달러 규모의 수출거래에 기여하였다. 자금별로는 중장기 보증 85억 달러(60.8%), 운전자금보증

11억 달러(7.9%), 수출보험 43억 달러(31.3%)를 지원하였으며, 대출지원 실적은 없다.

향후 미수은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OECD 비회원국 공적수출신용기관의 동향과 새로운 수출신용 영역 개발 등 세계 공적 수출신용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단기거래 지원에도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표 1〉 미수은 지원실적

단위: 백만 달러

	승인건수		승인금액		수출기여액		프로그램예산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대출	5	0	227.1	0.0	242.4	0.0	21.5	0.0
장기	5	0	227.1	0.0	242.4	0.0	21.5	0.0
중기	0	0	0.0	0.0	0.0	0.0	0.0	0.0
보증	694	785	8,533.1	9,571.8	12,870.3	13,414.6	206.0	185.4
장기	49	66	7,112.1	8,076.1	8,072.6	8,872.9	165.9	145.9
중기	187	206	540.6	399.4	619.8	468.0	29.2	25.4
운전자금	458	513	880.4	1,096.3	4,177.9	4,073.7	10.9	14.1
수출보험	2,408	2,343	4,560.8	4,364.4	4,721.4	4,443.8	42.4	41.5
중기	497	363	911.5	451.0	1,072.1	530.4	35.2	29.2
단기	1,911	1,980	3,649.3	3,913.4	3,649.3	3,913.4	7.2	12.3
계수조정							9.3	14.3
합계	3,107	3,128	13,321.0	13,936.2	17,834.1	17,858.4	279.2	241.2

## 중소기업지원

미수은은 중소기업지원에 총 2,617건, 26.6억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이는 전체 승인건수의 84%, 전체 승인금액의 19%를 차지한다.<sup>1)</sup> 미수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207개이며, 승인금액 50만 달러 이하 거래는 1,070건이다.

자금별로는 수출보험이 총 승인금액 43억 달러 중 16.9억 달러를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운전자금보증은 총 승인금액 11억 달러 중 8.5억 달러를 중소기업에 지원하였다. 이밖에 거액·장기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중장기보증의 승인금액 85억 달러 중 1.1억 달러를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9.5억 달러는 하청기업으로 참여한 중소기업에게 간접지원 되었다.

미수은은 중소기업이 미수은 금융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모든 신청서 양식을 게시하였으며,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인 'EXIM On-line'을 개발하여 신청부터 승인, 보상(claim)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연차총회 참석, 여성기업인 단체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전담 부총재 임명 등 중소기업 지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프로젝트/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미수은은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Qatargas II)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Q-Chem II), 이집트의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총 8.9억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멕시코 Pemex의 유전 프로젝트, 알바니아의 항공관제 프로젝트, 말레이시아의 통신 프로젝트, 카타르의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스트럭처드 파이낸스 방식으로 총 20억 달러를 승인하였다.

## 수송

미수은은 수송부문에 총 45.8억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수출목적물별로는 대형 상업항공기 78기, 항공기 엔진 14기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43억 달러를 승인하고

〈표 2〉 미수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단위 : 백만 달러

자금 종류	승인 건수		승인 금액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수 출 보 험	2,188	2,107	1,570.6	1,695.8
운 전 자 금 보 증	378	458	620.3	850.4
중 장 기 보 증	6	52	66.4	114.1
합 계	2,572	2,617	2,257.3	2,660.3

1) 미수은법은 총 승인금액의 2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소형항공기, 헬기, 전동차, 트럭, 기타 수송 장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8억 달러를 승인하였다.

### 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8,180만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자금별로는 중장기보증 2건, 310만 달러, 운전자금보증 144건, 3,550만 달러, 수출보험 62건, 4,32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680만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지원 프로젝트 중에는 풍력 및 태양력 에너지관련 230만 달러를 수출보험으로 지원하였으며, 지열발전(geothermal power project) 관련 160만 달러, 광기전력소자(photovoltaic devices)<sup>2)</sup> 관련 1,020만 달러를 운전자금보증으로 지원하였다.

미수은은 세계적으로 환경친화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OECD에서 재생에너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최장상환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한 점을 고려하여 동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첨단기술제품/서비스/농업

첨단기술제품(전자제품, 통신, 의료장비 등)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1억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이중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보증 5,310만 달러를 승인하여 2.7억 달러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에 기여하였다.

서비스부문(엔지니어링, 디자인, 건설, 원유시추, 교육훈련, 컨설팅 등)은 총 10억

달러의 수출에 기여하였으며, 이중 중소기업에 6,570만 달러의 운전자금보증을 승인하여 5.6억 달러의 서비스 수출에 기여하였다.

농업부문(농산물, 가축, 식료품, 농기구, 비료 등)은 총 3.7억 달러의 수출에 기여하였으며, 중소기업에는 8,840만 달러의 운전자금보증을 승인하였다.

## 2. 수은강령(Charter) 연장 관련

미수은은 2002년 승인된 강령(Charter)이 2006년 9월 30일자로 종료되며, 동 강령 연장과 관련하여 2006년 3월 8일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국제무역 및 금융소위에서 의회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동 청문회에는 미수은 총재, 은행연합회 대표로 PNC Bank, 기업 대표로 Boeing사, 중소기업 대표로 SBEA(Small Business Exporters Association)가 참석하였다.

미수은 총재는 2002년 수은강령 연장 이후 총 479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여 630억 달러의 수출에 기여하였으며, 손실률도 2% 미만으로서 건전한 영업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총 여신의 20% 이상을 직접 지원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중소기업 전용 'EXIM On-line' 개발, 중소기업전담 부총재 임명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수은 총재는 향후 환경친화기업, 여성 및 소외계층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수출 등 미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미수은 강령을 2011년 9월 30일까지

2) 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장치.

5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은행연합회 대표로 참석한 PNC Bank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OECD 비회원국 공적수출신용기관들의 공격적 영업으로 인하여 미국 수출기업들이 국제무역시장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미국제품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수은의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2002년 이후 사용한 적이 없는 Tied Aid Fund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수출신용기관들의 공격적 영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 대표로 참석한 Boeing사는 자사 항공기 수출의 30% 이상을 미수은의 금융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른 수출신용기관들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수은의 존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 재 철】

### ◆ 핀란드 Finnvera, 자사의 수출금융 지원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핀란드의 공적수출기관인 Finnvera는 최근 자사 수출금융 지원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연구는 핀란드 Turku 경영대학원의 중소기업연구소<sup>3)</sup>가 시행한 것으로 연구대상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Finnvera가 지원한 수출신용보증업무와 Finnvera의 자회사인 핀란드수출신용회사(FEC)의 이자율지지 업무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간 동안 Finnvera의 수출신용보증은 150억 유로 상당의 생산효과와 10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지원 대상이었던 기업뿐만 아니라 지원기업의 하청업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핀란드 경제 전체로 파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Finnvera가 승인한 총 3,750건의 수출신용보증은 2,000유로 규모에서 수억 유로에 이르는 등 보증규모가 다양하였다.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한 기업 중 400개

이상이 중소기업이었으나 동 기간 전체 보증금액의 대부분은 대기업 지원거래였다. 이 자율지지업무의 경우 대기업의 비중이 수출신용보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업 및 제지, 기계, 통신, 조선 등의 업종에서 Finnvera의 수출금융을 많이 이용하였다. 수출지원 국가는 총 93개국으로 대부분이 동유럽, 아시아, 북미국가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정치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에 있어 Finnvera의 금융지원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여 동 기관의 지원이 기업들의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기업의 60% 이상이 Finnvera의 지원으로 경쟁적인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수출거래가 가능하였고 거래규모를 늘릴 수 있었으며,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막는 효과를 냈다고 응답했다.

3) The Small Business Institute of Turku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